수능 이의신청 '봇물'

문제·정답 항의 260건…평가원 27일까지 심사

지난 15일 실시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답 및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18일 수능시험 출제·채점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정답 이의신청 건수는 단순 항의나 중복 이의신청,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제외하고 모두 260여건에 달했다.

평가원은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인 15일 오후부터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시험문제나 정답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19일 오후 6시 신청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영역별로는 언어영역이 약 60건, 수리영역 1건(수리 나형), 외국어(영어)영역 약 15건, 사회탐구영역 약 80건, 과학탐구영역 약 90건, 직업탐구영역 4건, 제2외국어·한문영역 약 10건 등으로 언어와 탐구영역에 주로 이의 신청이 몰렸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윤리과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약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윤리 7번 문항에 대한 이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자(이이)의 사상을 보여주는 지문을 읽고 그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7번 문항에서 정답으로 발표된 5번 외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조선 성리학자 중 '이황은 경(敬), 이이는 성(誠)을 중시한다'고 배웠는데도 이 '이분법적 도식'에 어긋나는 내용이 5지선다 보기 중 포함돼 혼란을 줬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과학탐구영역에서는 화학I(약 30건)과 생물I(약 40건) 과목에 이의신청이 집중됐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을 27일까지 심사한 뒤 28일 오전 11시 홈페이지에 확정된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성적은 다음달 12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연합뉴스

情으로 버무린 '사랑의 김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과 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 직원, 새터민 등 150여 명이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적십자 광주 봉사관에서 '사랑의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들은 이날 1천750포기를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조손가정 35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녀 1명이상 기혼자 '상근예비역' 가능

병무청 내년부터

내년도 현역입영 대상자(병사)로 자녀 1명 이상을 둔 기혼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18일 "내년 현역입영 대상자 중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지난 13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근무 부대로 출·퇴근할 수가 있어 부인의 산후조리를 돕거나 영·유아 양육 및 집안 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는 광주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홈 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출력해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 6일째인 이날 현재 200여명이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받는 등 신청자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자녀를 둔 입영대상자가 연간 1천100여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려대 정시 합격자 수능 등급 공개 파장

사립대들 추가 공개 움직임속

"대학·학과 서열화 조장" 논란

올해 첫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로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서울 시내 사립대들이 지난해 정시모집 합격자들의 수능 등급을 잇따라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은 수능점수가 1~9등급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학간·학과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고려대는 지난 17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7개 사립대학 공동 입시설명회에서 '2007 정시모집 합격자 수능 등급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과대학 합격자들의 평균등급은 '언어·수리·외국어·탐구영역 모두 1등급', '경영대학은 언어·수리·외국어영역 1등급, 탐구영역 1.33등급'이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18일 "최종합격한 하위 25%의 평균 수능등급"이라며 "학원의 배치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패턴을 분석해 입시에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를 시작으로 서강·성균관·연세·이화·중앙·한양대 등도 다음달 초까지 예정된 공동 입시설명회와 다음달 15일 전후로 열리는 대학별 입시설명회에서 지난해 합격자의 수능등급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양대는 다음달 16일 자체 입시설명회에서 합격자들의 영역별 수능 평균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의 수능 평균등급은 그동안 대학들이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입시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과 학과간에 서열화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올해 초 고려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능안정권 등급을 공개하려 했다가 교내외에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인터넷 공개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어린이 학대 81%가 집안서

경제 사정 어려운 가정일수록 심해

상담사례 8,903건 분석

어린이 학대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이뤄지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 학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작년 한해 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8천903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자의 직업은 무직이 25.6%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단순노무직'이 14.4%로 뒤를 이었고 '주부' 8.8%, '서비스·판매직' 7.9%, '비정규직' 6.8%, '전문직'은 2.4% 등 순이다. 아동학대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는 28.3%였다.

학대 장소는 대부분 '집 안'(80.9%)이나 '집 근처 또는 길가'(3.9%)였으며 발생 빈도는 '거의 매일' 49.0%, '2~3일에 한번' 10.1%, '일주일에 한번' 8.9%였다.

학대 유형은 '방임'이 3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29.8%, '신체학대' 24.9%, '성학대' 5.1%, '유기' 1.4%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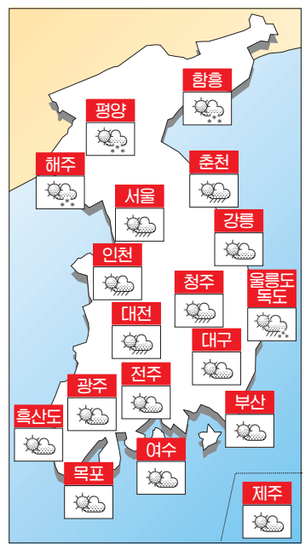
피해 어린이의 가족유형은 '부자(父子) 가정'(31.8%)과 '모자(母子)가정'(15.4%) 등 편부모 가정이 47.2%를 차지했으며 '일반가정' 26.5%, '재혼가정' 7.5%, '동거가족' 4.6%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겨울이 왔어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리겠다.

11월 19일 (음 10월 10일) ◇전국날씨

광 주	차차 흐려짐	-3~9℃
목 포	차차 흐려짐	0~9℃
여 수	차차 흐려짐	1~10℃
완 도	차차 흐려짐	-1~10℃
구 례	차차 흐려짐	-6~9℃
해 남	차차 흐려짐	-4~10℃
장 흥	차차 흐려짐	-5~10℃
고 흥	차차 흐려짐	-3~12℃
순 천	차차 흐려짐	-6~9℃
영 광	차차 흐려짐	-2~10℃
진 도	차차 흐려짐	-3~10℃
전 주	차차 흐려짐	-4~8℃
남 원	차차 흐려짐	-7~8℃
흑산도	차차 흐려짐	4~10℃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5~3.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08:37 21:21 썰물 02:12 14:10
여수 밀물 03:46 16:30 썰물 09:47 22:57

▲해뜸 07:10 ▲해짐 17:25 ▲달뜸 13:52 ▲달짐 00: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날 씨						
최저/최고	3/9	2/10	2/14	3/13	2/13	2/14

광주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회피 여전

37개교 학교 운영비 차감당해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 학교 운영비를 차감 당한 학교가 37곳에 달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68개 사립 중·고교 가운데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에 미치지 못해 학교운영비 차감 처분을 받은 학교는 37곳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1개 학교는 부담비율이 3% 미만이었으며 특히 춘광학원 소속 경신중은 법정부담금 1억2천256만 8천원 중 0.8%인 100만원만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올해 10월까지 재정결합보조금 2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10개 학교의 부담률은 수피아여중 1.1%, 수피아여고 1.0%, 동아여중 1.7%, 동아여고 1.9%, 정광중 1.0%, 정광고 1.3%, 고려중 2.3%, 고려고 1.7%, 대광여고 2.4%, 서진여고 2.4% 등이었다.

반면 법정부담금의 30% 이상을 부담해 인센티브로 건물유지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17곳이었으며 이 중 동명고와 보문고는 법정 부담금 전액을 납부했다.

한편, 이들 68개 학교의 지난해 법인전입금 총액은 18억 5천334만원으로 법정부담금 총액 91억 5천221만5천원의 20.3%에 그쳤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백범 암살 배후 추적

권중희씨 별세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를 밝히기 위한 활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권중희씨가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별세했다. 향년 71세.

18일 유가족에 따르면 권씨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택에서 혼자 컴퓨터로 글을 쓰다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1987년 3월 숨어 살던 백범 선생의 암살범인 고(故) 안두희(96년 사망)씨를 찾아내 서울시 마포구청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자(68)씨와 장남 태정(43), 장녀 혜선(41), 차남 태연(37)씨 등 2남1녀가 있다. /연합뉴스